

한국 '빈곤 줄이는 성장' 亞太 최고

빈곤 감소 성장지수 2.13 ... 인도·방글라 제치고 1위 성장과 함께 빈곤층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 중 빈곤비율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성장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의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13으로 가장 높았다.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분배상태의

변환이 없을 때 성장이 빈곤비율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말하며, 1을 넘으면 빈곤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0과 1 사이면 성장이 반드시 빈곤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0 이하면 경제성장이 빈곤 비율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을 각각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1990~200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했으며, 유엔 ESCAP은 우리나라를 조사대상 국가 중 빈곤 비율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성장을 한 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빠른 성장과 함께 분배의 악화없이 빈곤 비율을 빠르게 줄여 빈곤감소적 성장지수가 높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분배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성장을 해도 빈곤이 덜 감소하거나 빈곤이 증가하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ESCAP은 또 중간 정도의 빈곤

감소적 성장을 한 국가로는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도(도시지역 0.77, 시골 지역 0.35)와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의 방글라데시(0.39)를 꼽았다. 중국(0.28), 네팔(0.23), 라오스(0.21), 베트남(0.15), 태국(0.13), 인도네시아(0.10)는 낮은 정도의 빈곤감소적 성장을 한 국가로 분류했다. 유엔 ESCAP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형태와 분배의 자선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 그들의 생산요소와 소비하는 품목들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개미들 '수난'

3월 한달간 증시 급락 시장흐름 역행 큰 손실만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3월 한달간 개인들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종목들을 매입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1.736.17에서 1,574.44까지 급락한 2월29일부터 3월17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30개 종목의 손실률은 평균 17.76%로 기관 2.45%, 외국인 4.17%의 4~8배에 달했다. 코스피지수가 3월19일 이후 반등해 다시 1,700선을 돌파한 3월28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30개 종목의 수익률은 2.30%로 기관 14.40%, 외국인 9.12%에 크게 뒤졌다. 개인들은 또 하락장이었던 2월29일부터 3월 17일까지 순매도한 상위 30개 종목이 이 기간 평균 2.31% 올랐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하락장에서 순매도한 상위 30개 종목은 각각 평균 17.76%, 14.13% 내렸다. 개인들은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반등장에서 순매도한 상위 30개 종목이 평균 13.25% 급등해 같은 기간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의 수익률 2.30%의 6배에 달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모습이다. 기관은 같은 기간 반등장에서 순매도한 상위 30개 종목이 평균 4.32% 올라 순매수 종목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낮았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처분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매입해 손실을 키웠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장에서 급락하는 종목을 팔아 손실을 줄이고 상승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매입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연합뉴스

새정부 집값 '들쭉'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 등 전국 평균 0.8% ↑ 광주·부산 등 5대 광역시는 0.24% 소폭 올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등 수도권 집값이 또다시 들쭉이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캐피탈'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일인 2월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0.80% 올랐다. 이는 대선 직전 한 달(0.38%)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폭이 높아진 것으로, 도심 활성화 정책 등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96% 올라 전국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은 1.34%나 올랐으며, 서울과 경기도 각각 1.18%, 0.63% 상승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북의 집값이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

북권의 경우 소형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6.92%나 오른 가운데 ▲도봉구(4.88%) ▲중랑구(4.37%) ▲용산구(3.09%) 등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강북의 집값이 강세를 보인 것은 재개발, 뉴타운, 녹지공원 조성 등 호재와 새정부의 도심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통적인 집값 강세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은 집값이 한 달새 0.02% 떨어져 강북권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같은 기간 광주와 부산 등 5대 광역시는 평균 0.24% 상승하는 데 그쳐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돼지고기 많이 드세요” 농협과 양돈협회가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등에서 주최한 '2008 우리 돼지고기 축제'에 참석한 인사들이 축하테이프 대신 '축하 소시지'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중소부동산·PF 등 대출 급증 부동산발 금융위기 오나

우리나라에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다'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을 통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 대출 부실화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47%이고 저축은행은 79%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1990년대 초 일본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일본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6%였고 비은행권은 40%였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총체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하락, 건설사의 자금난 등이 우려돼 부동산 PF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가계의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예측했다. 또 부동산·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락 등 실질물가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합뉴스

원유 도입단가 배럴당 90달러 치솟아 '유가충격' 무역수지 적자 지속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0달러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원유 도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입액이 대폭 늘어났다. 무역수지도 유가충격으로 당분간 적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원유 수입액은 63억 달러로 2월 전체 수입액 62억2천만 달러보다 많고 이달 전체로는 71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1월(72억5천만 달러)에 이어 다시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3월(47억4천만 달러)보다는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통관 원유물량은 7천500만 배럴로 작년 3월보다 7%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원유 도입물량은 줄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도입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원유 도입단가는 지난해 3월 배럴당 58.7 달러에서 이번 달에는 94.7달러까지 61.3% 올랐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82.32 달러로 처음 80달러를 넘은 뒤 꾸준히 올라 2월에는 91.84 달러로 90 달러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8개 시중銀 '수수료 담합' 100억 과징금

국민·산업 등 8개 시중·국책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신설한 것으로 적발돼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크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중소기업·산업은행이

다. 이들 8개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크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 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 뱅크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후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할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다. /연합뉴스

가입엔 "문제 없다" ... 보험금 지급엔 '미적미적' 고객 우롱하는 두얼굴의 보험사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모집한 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와 가입자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문의하면 별 반응이 없다가 관계 기관을 통해 항의가 들어오면 뒤늦게 피해를 구제해주는 일이 많아 소비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김모(51·여)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생명보험 설계사로부터 월 보험료가 25만7천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김씨는 "B형 간염 보유자인데 괜찮으냐"고 묻자 설계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 서명만 하라"며 가입을 재촉했다. 가입당시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2007년 1월 류머티즘 진단을 받아 매달 30만~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월초 보험사로부터 "일주일 3일만 병원에 가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B형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무릎이 아파 족집게를 봐가며 병원에 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보험사는 같은 달 2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설계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 측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부 김모씨는 2005년 10월 D화재 직원으로부터 통원 및 입원 치료비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7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 11 37 39 41 43	1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186,530,0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009,815	27
3 5개 숫자 일치	1,463,054	1,089
4 4개 숫자 일치	57,268	55,643
5 3개 숫자 일치	5,000	922,288

팝콘복권 (제101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768097
2	1억	5조 147586 1조 497977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8274
5	50만	각조 8862
		각조 68
6	2천	각조 28
		각조 06
		각조 3
7	1천	각조 4
		각조 5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영일국어학원	광영일학원 총무, 사무직 직원모집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1	062-232-0582
금호생명	금호생명 지역 광주TM지점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4/01	062-360-5201
스킬스 나사*	정규직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62-367-1150
리빙프라자*	이동통신/지역 시설/운용/유지보수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2	062-373-7711
리빙리우	감각있는 MD 및 사인판점자를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62-433-4894
세인상사	일반사무 및 매장관리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62-527-2051
동부회재 광주 고객센터	동부회재 광주지점 TM Manager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220-8366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04	062-236-0217
전산물류유통센터	복사업무, 출력업무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04	062-375-8584
국도디자인*	엔지니어(사내) 현장관리 감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6	062-362-6626
리빙프라자*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경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4/07	062-375-8407
씨에스컴*	조선(선박제조) s/w개발관련 c.c++, basic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07	062-530-0815
EK Productions Inc.	이벤트기획자를 모집합니다.	대졸/경력년	회사내규	04/07	062-513-5050
삼우기연	기계설비 용접 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24	062-951-9131

<광주잡리터에 512-6210 제공>

국제 쌀값 폭등 ... 한국 '무풍지대' 쌀 지급 가능 직접적 영향·타격 없어

최근 국제 쌀 값이 치솟아 쌀이 주식이인 나라의 '폭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쌀 지급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직접적 영향이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산 쌀값은 지난 27일 1당 580달러에서 760달러로 급등했다. 1월 380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FT는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이집트·감비아 등의 쌀 수출 중단조치를 지적하며 심각한 쌀 공급난을 겪고 있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폭동을 비롯한 사회불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산 쌀만으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만큼, 국제 쌀값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작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 468만톤으로, 식량(372만6천)과 가공용(43만7천) 등 총수요량인 416만3천톤보다 많다. 여기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24만6천톤까지 수입대 공급은 더 여유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농협은 공공비축용으로 69만5천톤 규모의 재고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